

화성 동탄2지구 2구역내 12-2지점(건물지)
현장설명회 자료

2013. 05.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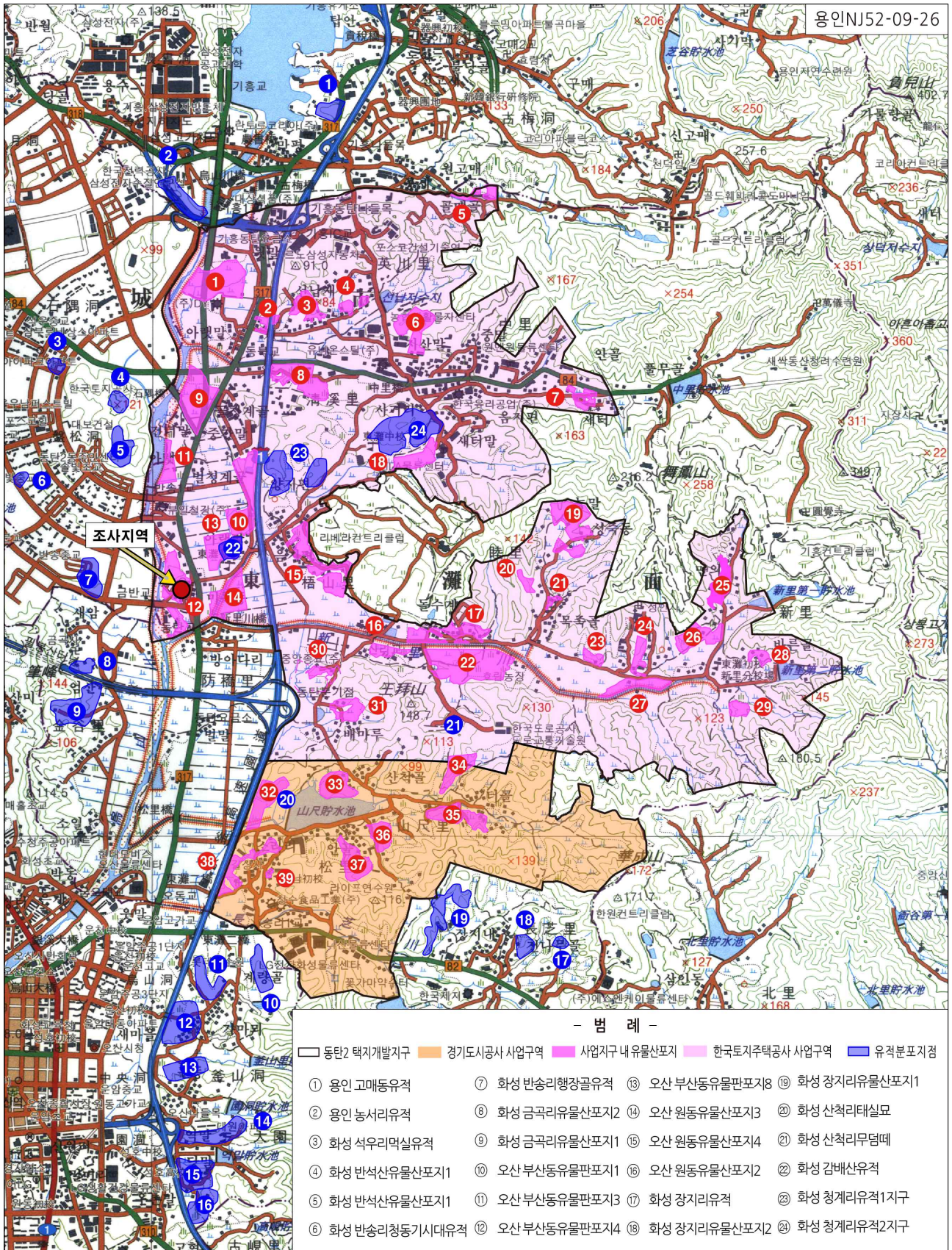
- 조 사 명 : 화성 동탄 2지구 2구역내 유적
- 허가번호 : 제2009-0804호
- 조사지역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일원
- 조사면적 : 12-2지점 건물지 약3,000m²
- 조사기간 : 2009. 11. 02. ~ 현재
금번추가발굴조사 : 2013. 03. 25. ~ 현재
- 유적성격 : 고려시대 건물지
- 조사기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 조사의뢰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2. 조사지역의 고고·역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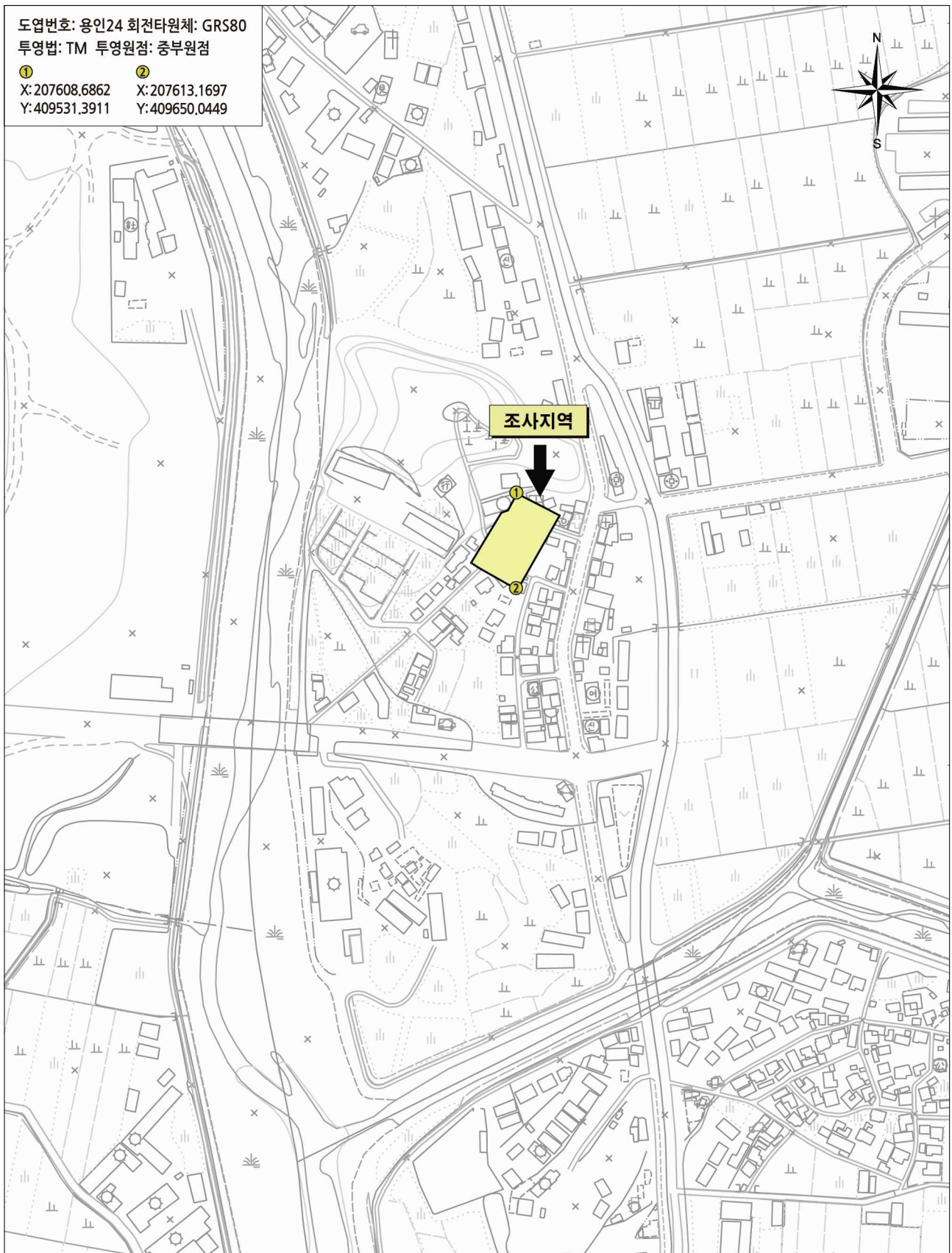
금번 조사지역이 위치한 동탄면 일원은 화성시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남쪽, 오산시의 북쪽, 용인시의 서쪽과 경계를 이룬다. 동탄면(면적:약52.72km²)일대는 석성산(해발472m)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는 오산천, 동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치동천·신리천·장지천·터골천 등의 지류가 합류하여 풍부한 수자원을 근거리에 두고 낮은 구릉성 산지들이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화성시 일대는 근래에 이르러 고고학적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선사유적 및 역사시대 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동탄2신도시내에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는데 감배산유적과 오산리유적, 청계리유적, 방교리 구석기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동탄 일대를 중심으로 구석기인들의 주요 활동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서해안지역에 치우쳐 확인되고 있으나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용인 농서리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어 내륙지역의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천천리유적과 고금산유적·석우리 동학산유적·반송리유적 등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동학산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친 환호와 주거지 등이 확인되어 동탄 일대에서는 중심지역이었음을 시사한다.

원삼국~삼국시대의 수원·화성지역은 한강유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그 지배국도 백제, 고구려, 신라 등으로 여러 번 바뀌었다. 우선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한 백제는 고이왕(古爾王)때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한강 이남의 지역들이 단계적으로 백제의 영역적 지배 속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상을 보여주는 유적으로는 동탄의 청계리유적이 있다. 유적에서는 주거지·가마·공방지·저장시설 등이 각각 구역을 달리하여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석우리 먹실 유적에서는 주거지 17기, 수혈유구 132기를 비롯한 삼국시대 경작유구가 조사되었다. 이후,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0)



[도면 2] 조사지역 일대 지형도(1:5,000)

475년 고구려의 공략에 의해 백제는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되었고, 백제와 신라의 동맹으로 한강하 유역을 재탈환하기까지 고구려의 세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고고학적인 자료 또한 청계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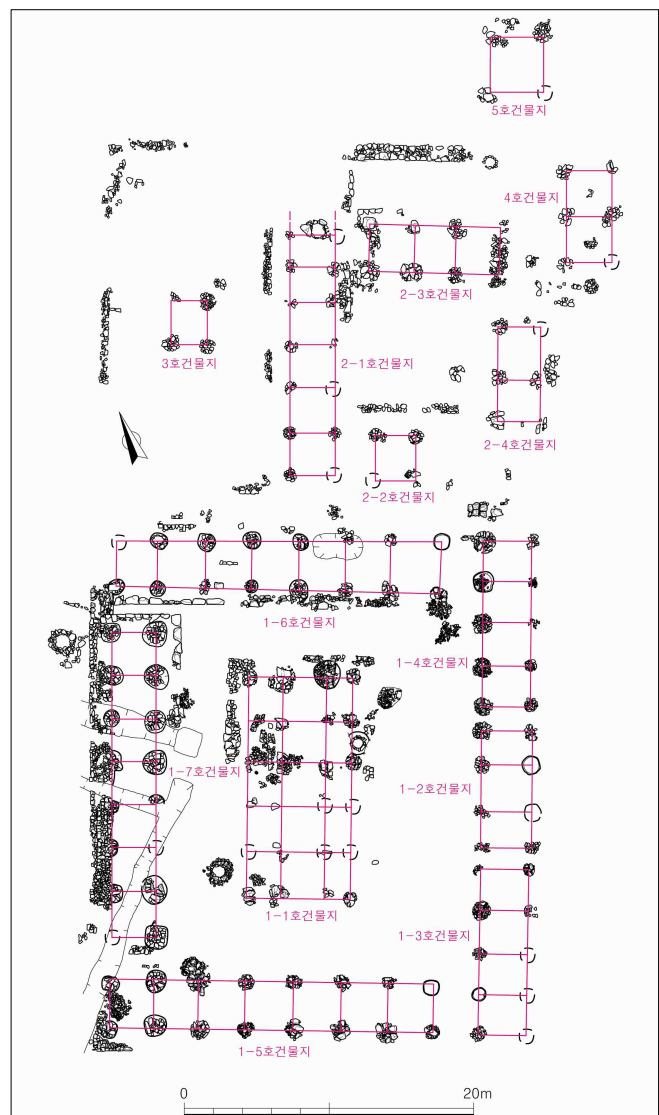
6세기 중엽에 들어서 백제는 일시적으로 한강유역을 회복하였지만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화성지역은 신라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 한강 유역의 주도권을 진흥왕(眞興王)대 이후 신라가 차지하게 되면서 수원·화성지역은 지속적으로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자라매산 구릉에서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3. 조사내용

고려시대 건물지가 확인된 조사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의 자라매산 남쪽에 자리한 동탄면사무소 인근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오산천이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317번 지방도가 남-북 방향으로 개설되어 있다. 조사지역 일대는 동탄면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면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와 가옥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이 일부는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 일대는 배후에 위치한 구릉의 사면 말단부와 평탄지를 포함하는 해발 약24m에 해당하는 곳으로, 황갈색 및 암갈색사질점토를 기반으로 하는 평탄면이다. 조사결과 고려시대 건물지와 담장지, 우물 등이 조사되었다.

1) 1호 건물지

1호 건물지는 상하수도시설과 근대 건축물 등에 의해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전체적인 평면형태를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다. 건물지는 방형의 형태로 행각이 자리하고, 중앙에 중심 건물지가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 건물지인 1-1호 건물지는 방형의 구획 중앙에 위치하며 정면 5칸, 측면 1칸, 전후 각각 1퇴칸으로 평면형태



[도면 3] 12-2지점 건물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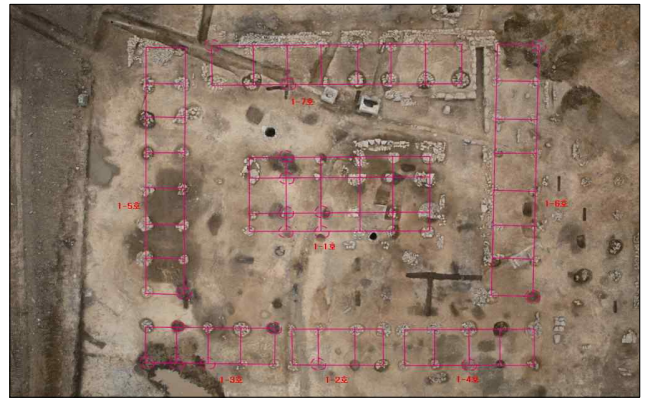
는 장방형이다. 건물지의 주칸거리는 정면 350~400cm, 측면 250~400cm로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보이고 있다. 적심 규모는 대부분 지름이 150cm인데 반해 일부 적심은 지름 250cm에 해당한다. 건물지의 서쪽과 북서쪽 모서리에는 적심과 맞물린 상태로 기단석열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기단석열은 크기 10~30cm 내외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사진 1] 12-2지점 건물지 전경



[사진 2] 1호 건물지 전경



[사진 3] 1호 건물지 배치양상

1-1호 건물지의 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적심 주변에 ‘ㄱ’자 형태로 잔존한다.

1-1호 건물지 주변으로는 행각으로 판단되는 ‘口’자 형태의 건물지가 존재한다. 각각 남서쪽, 북서쪽, 북동쪽에 위치한 1-5호, 1-6호, 1-7호 건물지는 정면 7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장방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칸 거리는 정면 400cm, 측면 400cm로 정연성을 보이고 있다. 1-6호 건물지의 남쪽과 1-7호 건물지의 북쪽, 서쪽, 동쪽 그리고 남쪽 일부에는 기단석열이 확인된다. 1-6호 건물지와 1-7호 건물지가 인접한 곳이 가장 양호하게 잔존한 곳으로 길이 100cm내외의 대형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일부에서 2~3단까지 잔존한다. 1-7호 건물지의 서쪽 적심열은 건물지의 벽체시설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열과 맞물린 상태로 확인되었다. 벽체시설 하부구조는 20~30cm에 해당하는 다양한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벽체시설 하부구조 서쪽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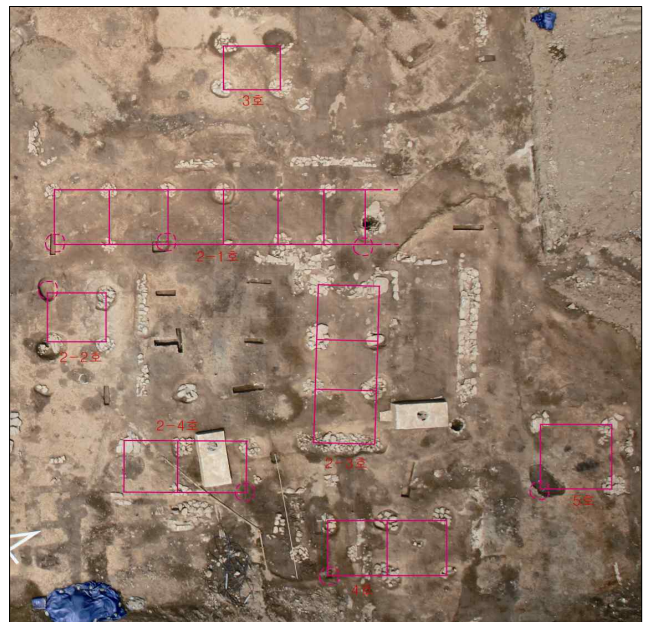


[사진 4] 1-7호 건물지 전경

로는 기단석열이 나란하게 맞물린 상태로 조사되었다. 기단석열은 벽체시설보다 2~3단 낮게 잔존한다. 1-1호 건물지의 남동쪽에 자리한 행각은 다른 쪽에 위치한 행각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1-3호와 1-4호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1칸 구조를 보이고 있다. 1-3호와 1-4호 건물지 사이 중앙에 자리한 1-2호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1칸 구조의 문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1호 건물지는 방형의 형태로 행각을 조성하고, 가운데에 중심 건물지를 배치한 양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동쪽에 위치한 건물지의 일부는 문지로 확인되었으며, 중심 건물지 또한 남서-북동 방향으로 긴 장방형 형태로 남동향 건물지를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호 건물지

1호 건물지의 북동쪽 행각과 인접한 2호 건물지는 동쪽 일부가 교란으로 인해 훼손되었으나, 일정한 구획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서쪽에 위치한 2-1호 건물지는 정면 6칸, 측면 1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적심열 하단에 위치한 기단열에서 계단이 시설되었는데, 계단의 위치로 볼 때 북동쪽으로 건물지가 더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주칸거리는 360~380cm 내외이다. 남서쪽에 위치한 2-2호 건물지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고, 남쪽에 위치한 2-4호 건물지는 정면 2칸, 측면 1칸이며, 주칸 거리는 350~370cm이다. 2-3호 건물지는 2-1호 건물지의 기단에 위치한 계단시설과 일부 중복관계를 보이고 있는 양상으로 2-3호 건물지가 후대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주칸 거리는 370~380cm이다. 2-3호 건물지의 북서쪽 모서리에는 기단석열이 확인된다. 기단석열은 ‘ㄱ’자 형태로 적심과 맞물리게 조성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담장지는 다양한 크기의 할석을



[사진 5] 2~5호 건물지 배치양상



[사진 6] 2-1호 건물지 세부



[사진 7] 2-3호 건물지 전경



[사진 8] 3호 건물지 유물출토상태(암막새)



[사진 9] 3호 건물지 유물출토상태(수막새)

사용하여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축조하였다. 북동쪽 일대 담장 규모는 현재 길이 1,110cm, 너비 115cm이다.

3) 우물

우물은 조사지역내에서 5개가 확인되었다. 우물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이중 3개는 원형의 형태로 하단부까지 정연하게 조성하였고, 나머지 2개는 정연성이 다소 떨어지게 축조되었다. 정연하게 축조된 우물은 10~30cm크기의 비교적 작은 할석들을 사용하였고, 정연성이 떨어지는 우물은 다양한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하단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사진 10] 우물 전경

4. 조사결과

화성 동탄2지구 2구역내 12-2지점 오산리유적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건물지는 중심 건물지와 부속건물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 건물지인 1호 건물지는 방형형태로 중앙에 정면 5칸, 측면 1칸, 전후 각각 1퇴칸의 구조이다. 그리고 중심 건물지 주위에는 정면 7칸, 측면 1칸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면에 위치한 건물지 중앙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문지가 존재한다. 북동쪽에 조성된 2~5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의 부속 건물지로 이해된다. 유물은 청자완, 귀목문 수막새, 암막새, 쌍용운문경 등이 출토되었다.

이번에 조사된 건물지는 고려시대 건물지 배치양상뿐만 아니라 동탄면 일대의 고려시대 지역상을 밝힐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